

난 알고 있어요

(복합 부분 발작)

H씨는 ‘이상한 발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22세인 그는 벌써 수년째 앓고 있는 ‘미친 짓’ 때문에 가족에 의해 입원된 것인데, 그 ‘미친 짓’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갑작스레 옷을 벗어 던지고 기성(奇聲)을 지르며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다니던 공장에서 쫓겨났던 것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조차 모두 싫어하고 멀리 하였다.

한동안 집안에 박혀 있던 그는 최근 들어 다시금 발작을 시작하여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슈퍼에서나 노인정에서나 그 습관적인 ‘벗는 버릇’이 튀어 나와서 온 동네에서 원성을 샀다.

함께 온 부모는 “애가 이럴 때면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 때 옆에서 건드리면 대책 없이 날뛴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진료실에서 그 환자는 자신의 그런 일들을 “모두 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리고 “잘 못 한 걸 안다”라고도 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하니 일단은 간질 발작이 아닐 것 같고, 잘 못 한 걸 안다고 하니 정신 분열병도 아닐 것 같고 하여 설부르게 예단(豫斷)을 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진료실에서 그는 부모가 말해 주는 것처럼 난폭하거나 폭언을 할 것 같은 기미도 없었다. 그냥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병실에 입원하였다.

일주일 이상을 정말 아무 문제없이 지냈다. 식사도 잘 하고 밤에 잠도 잘 잤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속이 메스껍다며 식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무언가 몹시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병실을 서성거렸다. 점심까지도 굶겠다면서 거절하였다.

오후 2시 경 ‘응급 콜’이 병실로부터 울려 나왔다. 그가 갑자기 옷을 벗어젖히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리는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을 그로부터 떨어지게 했다. 그는 상동적(똑같은 유형의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것)인 동작으로 자꾸만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 비슷한 소리를 하고 간간이 주먹을 날려 댔다. 한 방이 시멘트 기둥을 때렸다. 주먹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렀다. 동시에 그는 눈을 허열게 뜨고 연방 입맛을 다셨다. 그는 일명 ‘측두엽(側頭葉) 간질’이라고 불리는 복합 부분 발작을 하는 중이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된 후 그는 강제로 침대에 결박당했다. 강력한 정온제를 정맥 주사하자 곧바로 그가 깨어났다. 거칠던 숨소리나 뿌득뿌득 소리를 내던 이갈이도 없어지고 바로 의식이 명료해졌다. 그러나 곧 바로 놀랄 만 한 일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영똥하게도 “내가 일부러 그랬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의 간질에서는 발작 중에 일어난 일을 나중에 꿈꾼 것처럼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사실과 전혀 다른데도 “다 기억한다”고 박박 우겼다. 정답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간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 하는 당황스러운 사태를 자주 경험하는 동안 그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나중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던 동안의 일을 언제나 다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해 왔던 것이다. 즉 그는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간질 환자가 아니다”라는 부정(否定)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통은 이와 반대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오랜 세월 동안 간질을 앓아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복되는 뇌의 저산소증과 뇌압의 상승, 그리고 가족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감으로써 느끼는 열등감과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갈수록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리하여 발작이 없는 기간에도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발작과 가짜 발작이 섞여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환자도 많다.

오랫동안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질 환자와 그 가족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